

스모의 근대 공간형성과 근대 스포츠로서의 소비*

우정미**
azisai@dreamwiz.com

<目次>

- | | |
|---------------------|-----------------------------------|
| 1. 서론 | 4. 근대 스포츠로서의 스모소비 |
| 2. 에코인(回向院)에서의 스모경기 | 4.1 관람자의 소비로서 혼바쇼(本場所)와
준교(巡業) |
| 3. 스모의 근대공간 | 4.2 국가체제에 의한 스모 소비 |
| 3.1 물리적인 공간 | |
| 3.2 법제와 규칙의 공간 | 5. 결론 |

主語語: 스모(SUMO), 리키시(RIKISHI), 혼바쇼(HONBASYO), 준교(JUNGYO), 에코인(EKOIN), 간진스모(KANJINZUMO), 국기관(KOKUGIKAN), 오즈모협회(OZUMOKYOKAI), 후타바야마(HUTABAYAMA), 근대공간(MODERN SPACE), 소비(CONSUMPTION)

1. 서론

일본에서의 스모(相撲)는 국기(国技)라고 한다. 종교성이 다분하고, 의례적이면서도 오락성을 가진 이 스모는 일본인이라면 대개 국기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기’라는 말이 생긴지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면서 국기로서 인식된 것이다.

스모의 시원은 역사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찾을 수 있다. 『고사

* 본고는 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C-D-2013-1081)을 받아 수행한 논문이다.

** 경상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전임연구원

1) 스모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한 단어 중의 하나가 ‘씨름’이다. 한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대명사이지만 한국전통적인 씨름과는 그 체제와 형식이 다르고,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한국어로 표기했다. 이에 준하여 본문 중의 스모 관련 단어들도 동일하게 했다. 예를 들면 혼바쇼(本場所≒본대회), 준교(巡業≒지방순회경기), 반즈케(番附≒대진표), 도효(≒모래판), 스모카이소(相撲会所≒스모협회), 텐란스모(天覧相撲≒천황이 관전하는 스모경기), 스모베야(相撲部屋≒리키시 양성소), 오야카타(親方≒스모베야의 운영자이면서 리키시들의 師匠), 유미도리(弓どり≒경기가 끝난 후에 승자의 춤을 이미지화하여 활을 휘두르는 의식), 사지키석(棧敷席≒마루로 된 관람석), 고멘코무루(蒙御免≒허락을 받다) 하후이리모야(破風入母屋≒삼각형의 장식판이 붙어 있는 팔작지붕), 도효마츠리(土俵祭り≒대회전날 경기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제사) 등이다.

기』의 국가양도편 중 다케미카즈치노카미(建御電神) 파견 조에서 신들의 힘겨루기가 나오고, 『일본서기』의 스이닌천황(垂仁天皇) 조에서는 인간의 힘겨루기가 나온다.²⁾ 이 시합에서 이진 노미노스쿠네(野見宿禰)를 일본스모의 시조신으로 모시고 있고, 현재 도쿄의 혼바쇼(本場所)가 있기 전에 노미노스쿠네 신사(野見宿禰神社)³⁾에서 제사를 지낸다.

헤이안(平安)시대는 궁중의 행사로서, 무사들이 집권하던 중세에는 무사들의 신체단련을 위한 행위로, 근세에 들어서는 사사(寺社)에 기부를 촉진하는 간진스모(勧進相撲)로 발전했다. 그러나 간진스모는 곧 흥행스모(興行相撲)로 바뀌었다.

18세기 이미 일본에서는 현대와 비슷한 프로선수를 양성하고, 그 프로선수의 경기를 돈을 주고 관전했다. 에도(江戸) 후기의 스모선수들은 당시 지배층이었던 다이묘(大名)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문화 되어 갔다. 그러나 메이지(明治)시대의 근대화는 스모사회에도 그 파급이 컸다. 우선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리키시들은 후원자를 잃었고, 서구의 근대의식이 들어오면서 일본전통적인 것이 부정되는 과정에서 스모금지론이 거론되기도 했다.⁴⁾ 스모계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면서 근대 스포츠로서 나아가게 된다.

스모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사⁵⁾는 물론이고 다양한 접근으로 스모를 심층적⁶⁾으로 집필한 저서들이 최근 많이 출간되었다. 연구논문⁷⁾ 중에서 본고에 선행

2) 역사서에 ‘相撲’의 첫출전은 『日本書紀』雄略天皇条13年 采女를 모아 相撲를 시켰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女相撲이다. 『古事記』神代の 建御電神派遣条에서는 국가를 양도하라는 것에 大國主神의 아들인 建御名方神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建御電神과 힘겨루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것은 신들의 힘겨루기 기사이다. 인간의 힘겨루기에 관한 垂仁天皇 7年の 내용 원문은 아래와 같다. 원문출전은 『日本書紀①』(1994) p314이다. 垂仁天皇7年秋7月乙巳朔乙亥(前略) 遣倭直祖長尾市喚野見宿禰。於是野見宿禰自出雲至則當蹶速與野見宿禰令拏力。二人相對立各舉足相蹶。則蹶折當麻蹶速之脇骨亦蹈折其腰而殺之。故奪當麻蹶速之地悉賜野見宿禰。是以前邑有腰折田之緣也。野見宿禰乃留仕焉。

3) 神社의 안내문에는 津輕家上屋敷에서 1885년 高砂部屋의 高砂浦五郎가 제사지낸 것이 神社의 시작이라고 적혀있었다.

4) 相撲禁止論은 明治 초기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구를 의식한 분위기가 배경에 있고, 직접적인 계기는 1871년 裸體禁止令이라 할 수 있다. 언론상에서 비등되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지론이나 무용론은 사라졌다.

5) 통사로서는 『近世日本相撲史』5권은 相撲協會스모협회가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50주년을 기념하여 한정 간행한 것으로 발족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그 외 酒井忠正(1964), 新田一郎(2010), 風見明(2002) 등이 있다.

6) 武藤泰明(2012)는 相撲協會의 운영체제와 운영수지에 대해서, 根間弘海(2010, 2011, 2013)는 行司, 玉木正之(2011)는 相撲界의 八百長(부정경기), 高埜利彦(1989)는 江戸시대의 相撲과 권력의 관계를, 生沼芳弘(1994)는 相撲 내부 사회를 相撲部屋의 변천과 조직, 보수,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그 외 武藤泰明(2012) 松木信也(2013) 등이 있다.

7) 草野えり(2003, 2004, 2006)는 『相撲紀要』에 番附, 巡業, 国技館 등에 대해서, 高津勝(2010)는 민중 속의 相撲를, デーモン閣下(2010)는 相撲가 국기인가를 반문하면서 국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松原隆一郎(2010)는 相撲의 인기비결에 대해서, 吉田満梨(2011)는 相撲 관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리 톰프슨(1990)의 것으로 가트만(Allen Gutmann 1932-)이 말하는 근대스포츠의 특징 제 요소들⁸⁾이 스모내부에서 추출할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검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통 무예인 스모의 근대화를 공간과 소비라는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191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당시 발행된 스모 관련 잡지(『角力世界』(1915~1919), 『国技』(1914-1919), 『角力雑誌』(1920-1923), 『相撲』(1936-1949))를 주된 사료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가 말하는 공간개념⁹⁾에 의거하고 있다. 그는 공간을 인간 개별 또는 집단적 행위와 인간을 둘러싼 일상 및 환경을 결부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사물, 풍경 및 건축물의 배치는 지리적 공간화의 구체적인 실례이지만 새롭게 생산되는 근대적 공간, 예를 들자면 지역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관념, 근대적 기구나 위원회 및 이를 규정하는 근대적인 법규나 조항, 나아가서는 근대 대중적인 언론매체와 민족의 정체성이 만드는 일종의 가상공간은 각 사회가 생산한 공간의 또 다른 양상이다. 그가 말하는 공간은 기존의 지리적 또는 현상적 공간개념에 사회적 관계와 공간구조의 관계라는 구조주의적인 의미를 통합한 근대적 의미의 공간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이고, 스모의 법제와 규칙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았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을 소비라고 한다. 소비자는 소비하는 사람, 소비하는 경제단위이며,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행위를 한다.¹⁰⁾ 스모를 관전하는 관람자는 관람자의 여가와 오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모를 소비하는 주체자이다. 때로는 국가체제나 권력이 국민통제를 위해 스모를 이용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관람자와 국가권력을 스모의 소비 주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통무예 스모를 근대 스포츠로서 관람하면서 개인의 오락과 여흥이란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국가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소비주체로서 행하는지를 살펴보면 스모의 근대성과 개인의 오락 여흥을 위한 스포츠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リー トンプソン(1990)은 相撲의 만들어진 전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8) アレン・グートマン 著 清水哲男 訳(1981) 가트만이 말하는 근대스포츠의 특징은 성과속,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만능주의이다. 이 중에 톰프슨은 성과 속(세속화), 합리화, 수량화, 기록추구 부분에서 검증하고 있다.

9) アンリルフェー 著, 斎藤日出治 訳(2000), p.50, p.72, pp.613-617

10) 林利彦(2008), p.33

2. 에코인(回向院)에서의 스모경기

스모의 룰과 기술이 정비된 것은 헤이안 시대이고, 궁중의 의식인 삼도절(三度節)의 하나로 서 세치에스모(節會相撲)가 행해지게 된 이후이다. 봉건시대의 스모는 무사의 신체단련하는 기술로서 넓게 행해졌다. 에도시대에는 신사 불사의 건립이나 중수(重修)를 위해 스모를 개최하여 관람객에게 기금을 권하는 간진스모가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막부(幕府)는 간진스모라 하더라도 치안을 이유로 간단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약 20여 년간 막부의 공식적인 간진스모의 허락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¹¹⁾ 허가를 받아 경기를 하는 장소는 대개 신사와 절이었지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정해졌다.¹²⁾ 간진스모가 막부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으로 고멘코무루(蒙御免)가 적혀있는 높은 깃발을 세우고 흥행을 했다. 여기에 기인해서 현대에도 혼바쇼 반즈케(本場所番附) 한 가운데에 고멘코무루가 적혀있다. 에도 중기가 되면 스모는 사사의 기진하는 간진스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변모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간진스모의 조직인 스모카이소(相撲會所)¹³⁾가 에도,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세 군데¹⁴⁾에 생겼다.

스모카이소가 관리하던 에도스모는 1833년부터 에코인에서 년2회 흥행이 정례화된다. 에코인은 에도 료바시(兩橋) 근처에 1657년 메이레키(明暦)화재 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에코인에서의 경기는 초기에는 무연고자 공양기부를 모으기 위한 간진스모였다.

에코인의 도효(土俵)는 흥행 시작 전에 만들고 끝나면 철거하는 임시가건물이었다. 비가 오면 흥행이 중지되는 ‘맑은 날 10일간 흥행(晴天十日之間 흥행)’이었다. 정례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막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흥행이 가능했다.

대전 방식은 동서대전(東西對戰)이었다. 동서제란 리키시(力士)를 동서로 나누어 대전하는 방법인데 같은 편끼리는 경기하지 않았다.¹⁵⁾ 임시 가건물 천막 아래에 도효가 만들어지면 관람석은 도효 바로 옆은 바닥에 바로 앉는 도마석(土間席)과 그것을 둘러싸고 2단으로 된

11) 高埜利彦(1989), p.10 1716년부터 20여 년간은 거의 江戸에서는 勸進相撲興行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渡世의 본거지를 江戸에서 京都, 大阪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12) 松木信也(2013), p.32 回向院에서 정기적인 경기가 정해지기 전까지 대개 富岡八幡宮에서 행해졌다.

13) 金指基(2002), p.54 江戸時代に 勸進相撲의 흥행을 운영했던 조직이다. 1887년 1월에 東京大角力協會로 개칭되었다가 1925년 12월 財団法人日本大日本相撲協會, 1958년 1월 財団法人日本相撲協會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4) 生沼芳弘(1994), p.17 京都相撲는 明治末期에 소멸되었고, 大阪相撲는 昭和初期에 東京相撲와 합병되어 현재에 이른다.

15) 生沼芳弘(1994), p.128

사지키석(棧敷席)이¹⁶⁾ 만들어졌다.

리키시들은 스모카이소 소속이긴 하지만 출신지의 다이묘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도, 오사카, 교토같은 대도시에서 스모경기를 하면서 후원자의 요구에 따라 출신지에서도 활동을 해야 했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 국체가 근대화라는 슬로건 속에 외국인을 의식하여 나체금지령, 스모무용론, 폐지론 등이 나왔으나 1884년 텐란스모(天覽相撲)¹⁷⁾는 인기회복의 계기가 되었고, 권력자 중에 스모 애호가들의 비호와 스모단체의 자구노력¹⁸⁾으로 극복하면서 근대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3. 스모의 근대 공간

3.1 물리적인 공간

에코인의 임시 가건물은 햇빛과 갑자기 내리는 비를 잠시 피하는 정도이지 날씨가 좋지 않으면 경기를 진행하지 못했다. 우키요에(浮世繪)의 속에 에코인 경기장은 도호를 중심으로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이 올려져 있는 정도이다. 가건물은 경기 전날에 만들고 경기가 끝나면 철거되었다. 개선을 위해서 1891년 천막을 이용한 개량건물이 가설되기도 했지만 이 또한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 않아 이내 원래대로 돌아갔다.¹⁹⁾ 스모카이소와 리키시들은 물론이고 후원하는 애호가 등은 날씨에 관계없이 상설적인 스모경기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1909년 6월 2일 상설관의 개관이 있었고, 이 날 도쿄일일신문(東京日々新聞)에 당시 굉장한 스모애호가였고, 상설관건설위원장이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介 1837-1919)는 상설관 설립 목적과 로 상설관의 이름을 ‘국기관’이라고 발표했다.²⁰⁾

16) 棧敷席은 枱席이라고도 하는데 사각형의 평평한 마루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아서 보는 관람석이다. 현재 東京兩國国技館 2층에는 의자로 되어 있다.
 17) 1884년 浜離宮延遠館에서 明治天皇앞에서 당시 横綱였던 梅ヶ谷가 도호이리(土俵入り)를 했다.
 18) 相撲無用論과 廢止論이라는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876년 力士들이 消防組結成한다. 東京警視庁이 관할하는 소방대와는 별도로 조직된 봉사단체였다.
 19) 風見明(2002), p.47
 20) 草野えり(2006), p.1, 風見明(2002), pp.100-101 세간에는 ‘国技館’이란 명칭을 板垣退介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설가인 江見水陰와 尾車検査役に 의해 ‘国技館’이란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적고 있다.

국기관은 건축가 다츠노 긴고(辰野金吾 1854-1919)가 설계를 했다. 그는 당시 이미 일본은행을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건물을 설계하여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1909년 5월 약 2년의 공기를 거쳐 준공되었다. 총 예산 27만엔 그 중에 13만7천이 철재와 골재 공사에 들었다. 원형건물이고, 반구상 지붕의 콘크리트로 된 4층 근대식 건물이었다. 관람석 1층은 선반식 17단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칸막이가 있는 사지키석이었고, 그 외연부에 2층석, 3층석, 4층석으로 되었다. 공식 정원은 1층 5천명, 2층 2천명, 2층 3천명, 4층 4천명으로 총수용 인원 1만 3천명이었는데 에코인의 가설경기장에 비교하면 4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에코인에서는 도호 주변 흙바다에 명석을 깬 자리가 일반석이었는데 상설관 개관되면서는 1등석 사지키석으로 바뀐다.

1909년 준공된 국기관에는 당시 천황제국가라는 분위기를 말해주는 옥좌가 있었다. 옥좌란 말 그대로 천황이 앉는 자리이다. 이 국기관 이후의 구라마에 국기관(蔵前国技館 1954개관)이나 료코쿠 국기관(両国国技館 1985개관)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1909년에 건립한 국기관에 천황이 직접와서 관람한 적은 없다. 다이쇼 천황과 쇼와 천황이 황태자시절에 한 두 번 있었다.

간진스모일 때는 도호 주변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맞배지붕을 얹은 것이 전통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이것이 1909년 국기관 개장 때는 장식미를 강조하여 4방향 하후이리모야(破風入母屋)지붕이었다가 그 이듬해 2방향 하후이리모야 형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1931년에 5월 혼바쇼부터는 신덴즈쿠리(神殿造り)의 지붕²¹⁾으로 바뀌었다. 신덴즈쿠리는 천황가와 관계깊은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지붕모양이다. 에코인 시절의 교지(行司)대기실은 북쪽에 있었다. 새로운 경기장에서는 남쪽으로 배치되었다. 이유는 북쪽은 임금이 앉는 자리라는 의식에서였다. 경기장을 지을 때 이미 텐란스모를 예상하고 옥좌까지 만들었다. 옥좌와 신덴즈쿠리 지붕과 더불어 교지대기실의 위치는 당시 천황제국가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쿄의 국기관에 이어서 각지에 국기관이 건립되면서 오사카에서도 국기관이 건립된다. 근세 후기 스모계 강자는 오사카스모²²⁾였는데 차츰 에도에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오사카는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에도 스모를 계승한 도쿄 스모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흥행스모를 기대하면서 1919년 9월 12일 대지 2,000평, 건평 500평 수용인원 1만명인 철근콘크리트 4층 구조물인 오사카국기관(大阪国技館)이 건립되었다. 등근

21) 根間弘海(2013), p.91

22) 荒井太郎(2008), p.30 大阪相撲는 1702年(元禄15) 4月 堀江新地開發地代納入를 목적으로 13일간 행해진 勸進相撲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다가 1897년에는 大阪大角力協會가 설립되어 성공하는 듯 했는데 1923年 春秋園事件의 영향으로 養老金を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후 쇠퇴했다. 그 후 東京相撲에 병합된다.

돋을 가진 우아한 서양식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사카국기관은 오사카스모협회 본거지로서 오사카 스모의 발전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 이후 오사카 스모는 쇠퇴일로를 걷는다. 30년대 후반 후타바야마(双葉山)²³⁾의 인기에 편승하여 오사카 스모의 재건을 꿈꾸며 1937년 3월 대지 6,000평, 건평 3,000평, 수용인원 2만5천 명, 돛지붕의 4층 콘크리트 서양식 건물인 오사카대국기관(大阪大國技館)을 개장한다. 이 건물은 당시 도쿄의 국기관보다 큰 시설이었으나 곧 시작된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실제 혼바쇼 흥행수는 7회에 그쳤다.²⁴⁾

도쿄 오사카를 비롯하여 구마모토(熊本), 나고야(名古屋) 등에도 국기관이 설립되었지만 대경기장은 몇 개에 불과하여 지방에 상설적인 경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²⁵⁾

국기관 건립²⁶⁾은 단순히 근대식 상설관이 지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모계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 여러 가지 체제 개혁을 하게 된다.

3.2 법제와 규칙의 공간

근대적인 전용 경기장인 국기관이 개관(1909)하면서 먼저 스모의 규칙과 경기 룰을 정한다. 전통적인 예능적인 성격을 벗어나 진검승부하는 스모도를 재정립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근대 스포츠의 영향으로 일신할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었다. 스모협회 규정은 이전에 合規則 1886년), 도쿄오즈모협회모우시아이규약(東京大角舐協會申合規約 1897년), 오즈모조합신규약(大角力組合新規約 1908년 力士품위향상을 의도하여 제정) 등을 계승한 형태였다.²⁷⁾

국기관 개관시에는 무엇보다도 협회에서는 리키시들의 품위향상과 예능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애썼다. 지금까지 없던 행동규정까지 만들어 스모계를 일신하려고 했다.

스모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기였다. 진검승부를

23) 本名은 穉吉定次(1912-1968), 四股名는 双葉山, 35代横綱. 1930년대 후반 69연승을 이루며 일본 相撲의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24) 大阪市城東区区役所자료(2014.1.20조사) 大阪国技館은 1945년 대공습 때 소실이 되었고, 현재 大阪市浪速区에 있는 通天閣 가까이에 그 흔적을 말해주는 석비만 세워져 있다. 大阪大國技館은 전쟁으로 인해 흥행이 중단되었고, 지붕에 쓰였던 적동을 비롯한 건축구조물이 군수품으로 제공되었다. 그 후 창고로 쓰여지다가 해체되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아파트 입구에 그 흔적을 말해주는 안내간판만 서 있다.

25) 『国技』3년30호, pp.46-48, 『角力雜誌』35호, p.6

26) 1909년 5월 준공이후 여러 번의 화재와 공습으로 인해 소실과 복구를 반복하다가 1945년 연합군에 접수되었다. 해체 된 이후에는 일본대학 강당으로 1982년까지 사용한 후, 노후화로 해체되었다. 현재 그 터에는 両国CITYCORE라는 복합건물이 들어서 있다. 蔵前国技館에서 현재의 1985년 両国国技館으로 옮긴 이후부터 旧両国国技館이라 부른다.

27) 金指基(2002), pp.395-403

해야 하는 승부사들이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예능인의 모습도 있었고 그로 인한 폐단도 많았다. 경기장 앞의 리키시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세우는 것을 금지하였고, 기진받은 술통을 쌓아두는 것도 금지했다. 전통적인 무예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하여 나게하나(投げ纏頭)²⁸⁾를 금지시켰다. 또한 리키시가 사지키석을 돌면서 관객에게 인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선수 기본적인 예의에서도 도호 위에서의 침벨기나 하품 등 품위과 관련된 것들을 금지시켰다. 경기장 드나들 때는 마쿠우치(幕内)²⁹⁾ 이내의 리키시들은 하오리하카마(羽織袴)를 입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순회 때에도 착용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야오초(八百長)이다. 즉 사전담합에 의한 경기인데 스모의 전통에서는 일종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고, 스모계에서는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다. 진검승부를 하는 스모도를 보여주고, 위신과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야오초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야오초에 대한 인식은 보여주기 위한 스모에 그 연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사소한 몸가짐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스모 경기형식과 규칙이 변했다. 1909년 도쿄의 국기관이 개장되면서 동서우승제도가 시작되었다. 동서로 나뉘어진 리키시들의 단체대항전으로 양 진영의 최다우승자가 우승기를 수여받았다. 개인우승제도는 1926년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 춘추원사건(春秋園事件)으로 동서제가 폐지되었다가 당시 후다바야마의 연승으로 높아지는 스모의 인기에 힘입어 1940년에 다시 부활했다.

리키시들의 경제적 기반은 근세에는 그들을 후원하는 다이묘들이 있었지만 메이지기에 들어오면 협회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각 스모베야(相撲部屋)의 오야가타(親方)에게 지급되었다. 오야가타가 리키시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었는데 그것은 생활비로서 늘 부족한 상태였고, 은퇴한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현대용어로 임금투쟁으로 이어진다. 리키시들의 단체행동은 근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기할 사건은 신바시구락부 사건(新橋俱樂部事件 1911)³⁰⁾, 미카와시마 사건(三河島事件 1923)³¹⁾, 춘추원사건³²⁾인데 세 사건 모두 리키시들의 단체행동으로 임금인상 요구와 은퇴

28) 金指基(2002), p.253 江戸時代에서 明治까지 相撲界의 관행으로 응원하고 있던 力士가 경기에서 이기면 축하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軍配가 올라가는 순간에 土俵를 향해서 자신의 모자나 羽織, 담배통 등을 던졌다. 이것을 거두어 선수대기실로 돌아가면 물건을 던진 사람이 직접 대기실로 찾아와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축하금을 전달했다.

29) 相撲力士의 급은 幕内, 十枚目, 幕下, 序の二段, 序の口로 나뉘어져 있고, 한국씨름의 천하장사격인 横綱과 그 아래 大関, 関脇, 小結, 前頭를 포함하여 幕内라고 한다.

30) 1911년 1월, 春場所를 앞두고 関脇以下 十両(=十枚目)以上の 力士 일동은 협회에 대하여 배당금, 양로금 등에 관한 대우개선을 요구한 사건이다. 每場所 후의 협회총수입의 10/1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그 3/2를 横綱 大関를 포함한 리키시들에게 배당, 나머지는 은퇴한 리키시의 양로금으로서 적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에 받는 양로금(養老金 일종의 퇴직금)에 대한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일련의 임금투쟁 사건이 후 리키시들의 임금에 대한 안정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고, 양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해지게 되었다. 1925년 12월 26일 스모협회가 ‘재단법인대일본스모협회’로 출발할 때 정해진 규약인 ‘협회기부행위(協會寄附行為)’는 이러한 제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 수용한 규약이었다.

일본 스모의 특이성 중에 하나가 검사역(檢査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교지의 판정에 이의제기 있을 때 재심의하고 판정하는데 이 때 교지는 재판정 협의에 참가하지 못 한다. 즉 경기 심판관 위에 심판관이 더 있는 시스템이다. 교지의 판정권 독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춘추원 사건이후에 맺어진 협정에는 교지혜야(行司部屋)의 독립을 인정하여 애호가들의 환호³³⁾를 받았다. 그러나 운영 특히 교지혜야 운영의 경비 문제로 인해 독립했다가 다시 각 혜야로 되돌아가 교지혜야의 독립은 우야무야 되었다.

4. 근대스포츠로서의 스모소비

4.1 관람자의 소비로서 혼바쇼(本場所)와 준교(巡業)

스모가 간진스모에서 흥행스모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체측은 소비자인 즉 관람자를 의식해야 했다. 진검승부를 보여주려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전통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관람자들

31) 1923년 1월 9일 春場所 직전에 東京相撲力士會가 협회에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일으킨 스트라이크 양로금, 本場所 배당금의 증액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협회는 경기 일정이 끝난 후에 고려하겠다고 회답하자 力士會는 즉시 실시를 요구하며 東京 上野驛앞의 上野館에서 농성했다. 협회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力士會는 11항목의 신요구로 바꾸었다. 협회는 교섭을 단념하고 本場所 흥행에 참가하지 않는 力士는 파문 제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幕內 36명, 十兩 29명, 行司 14명 모두 79명이 東京都 荒川区 三河島の 日本電解會社 공장에서 농성을 했다. 경시총감의 조정으로 화해를 하고, 수입금 증대를 위해 협회는 경기 일수를 하루 늘려서 11일로 하고, 이익금을 양로금과 배당금 증액에 충당하기로 했다.

32) 1932년 1월 6일 春場所 전에 大日本相撲協會와 力士들 사이의 분쟁이다. 天龍事件이라고도 한다. 선대 出羽海(常陸山)가 있을 당시에 입문한 고참 力士가 당대 出羽海(兩國)에 대하여 배당금과 대우불만을 호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 關脇天龍가 협회에 회계와 제도에 대하여 개혁요구를 제안한 것이 협회전체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결국 분쟁을 일으킨 力士들은 협회를 탈퇴하여 大日新興力士團을 결성하였다. 그 후에 革新力士團과 합병하여 大日本相撲連盟을 결성한다. 그 후 天龍 등은 大阪에서 關西相撲協會를 1933년에 설립했으나 4년 후에 1937년에 해산한다.

33) 『角力雜誌』35호 pp.7-8

에게 제공해야 했었다. 관람자들은 단순히 주체축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오락으로서 여흥으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1909년 국기관 개관 당시에는 경기장 내부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우선 도효 주변이 어둡다는 항의에 전등을 달아 해결하려고 했고, 도효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 때문에 경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기둥을 가늘게 교체하기도 했다. 도효를 중심으로 사방의 기둥과 지붕은 신사를 형상화한 것이다. 스모가 신에 바치는 신성한 행위라는 것에 연유한다. 그러한 신성한 곳의 구조물을 관람자의 요구에 변형시킨다. 또한 검사역들이 사주(四柱) 앞에 앉아 있어, 이 또한 시야방해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승부판정을 위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다가 1928년 검사역들이 도효 아래로 내려가 관객의 시야를 확대시킨다.³⁴⁾ 조금 시대가 내려가지만 1952년에는 tv중계하는데 시야가 가린다고 하여 결국에는 도효 주변의 사주를 없앤다. 다름 아닌 신전 기둥을. 이렇게 보면 스모의 전통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가트만은 근대스포츠 특징의 첫 번째를 ‘세속화’를 들었다. 그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면서 고대의 스포츠(엄밀히 말하면 스포츠라고 할 수 없지만)는 신성한 종교행위였다고 했다. 그것이 근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의례적인 것은 남지만 영적이고 성스러운 것 세속화된다고 했다.³⁵⁾

토프슨은 지극히 세속화 되어 있는 것이 스모의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더 즐긴다. 도효마츠리(土俵祭)나 요코즈나(横綱)의 도효이리(土俵入り), 매일 경기 마지막에 행하는 유미도리식(弓取り式)에는 적극 후렴을 넣기도 한다. 그것이 없으면 오오스모가 아니라고 한다. 적절하게 전통이란 이름하에 옛날방식의 머리모양, 살바와 화려한 계쇼마와시(化粧廻し)를 보고 즐긴다.

스모 경기 개최 일수는 협회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기 있는 리키시에 환호하는 팬들로 대성황을 이루면 자연 흥행 일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에도시대에는 1757년 이후의 반즈케에는 ‘흥행일수청천 8일간’으로 되어 있고, 1774년 3월 이후 ‘청천10일간흥행’이 국기관 개장까지 유지되었다. 맑은 날 10일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와서 경기가 쉬게 되면 그 날은 경기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한 경기일정이 10일을 훨씬 넘기는 일도 많았다.³⁶⁾ 1909년 국기관 개장되면서 날씨 관계없이 10일간 흥행이었다. 춘추원 사건 이후 하루가 연장되어 11일간, 후타바야마의 인기에 힘입어 1937년 5월부터 15일간 흥행이 되었다. 현재에도 15일간 흥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34) 『角力世界』43호

35) アレン・グートマン 著 清水哲男 訳(1981), pp.33-48

36) 草野えり(2003), pp.2-3

대회 횟수는 예코인에서는 연 2회가 정례적인 본대회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반드시 연 2회는 아니었다. 3, 4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³⁷⁾ 이 또한 대중의 인기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1920년대 스모계는 약간의 침체기였다. 당시 야구³⁸⁾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관중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스모의 인기가 하락하고, 관중이 적어지는 한 원인을 야구인기에 있으니 관람객을 의식한 스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애호가들의 애정어린 충고도 있다.³⁹⁾

지방 순회경기를 준교(巡業)라고 한다. 혼바쇼와 혼바쇼 사이에 준교를 하게 되는데 준교의 시작은 오사카 교토, 에도에 스모흥행단체가 생긴 에도중기 이후부터이다. 메이지 후기가 되면 지방준교도 합병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기 리키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수익 차이가 커지자 합병에서 분리해서 실시하였다. 합병이든 분리가든 스모경기를 보는 지방 관객의 입장에서는 인기 리키시의 경기를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바닥에 선만 그어놓고 맹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상이 아닌 특별한 것이었다.⁴⁰⁾ 각 지역 유지들은 물론이지만 스모애호가로 자칭하는 게이샤(芸者)들의 호응 또한 적극적이었다.⁴¹⁾ 자신이 응원하는 리키시가 나오면 상대편 리키시를 향해서 저 달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애교어린 응원도 한다.⁴²⁾ 준교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와 조선에도 건너가 순회경기를 갖는다.⁴³⁾

준교로 지방에 나가면 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개 소·중학교 교정을 비롯한 넓은 광장이나 하천가였다. 이때 반드시 별개의 도효를 만드는데 지면에 원만 그어 놓은 도효에서 연습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야마케이코’(山稽古)라 한다. 혈기 왕성한 리키시들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연습하는 모습은 2겹 3겹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동시에 스모의 중요한 보급활동이 되었다.⁴⁴⁾

37) 金指基(2002), p.301 1953년 4월부터 연 4회 東京와 大阪에서 개최되다가, 1957년 11월 九州대회가 더해져 연 5회가 되었고, 1958년 7월에 名古屋가 더해져 연 6회가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연 6회 本場所가 열리고 있는데 1월, 5월, 9월 本場所는 東京에서 열리고 있고, 3월은 大阪, 7월은 福岡, 11월은 名古屋에서 각각 15일간 개최된다.

38) アレン・グットマン 著 谷川稔 外 3 訳(1997), pp.91-94 일본에 야구가 소개된 것은 1873년이고, 1915년에는 大阪毎日新聞이 전국야구대회 스폰서가 될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다. 1934년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시작된다.

39) 『角力雑誌』19호, p.13

40) 『国技』4년7호, pp.6-7

41) 『角力雑誌』15호, p.39, 『国技』3년7호, p.30, 8호, p.26, 10호, p.49

42) 『国技』3년7호, p.32

43) 『相撲』(1936-1949)가 창간 된 이후 매 호마다 지방 순회경기를 자세하게 기사화하여 전하고 있다. 특히 朝鮮과 滿州에서의 경기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경기일정 뿐만 아니라 力士들의 감회, 현장모사를 구체적으로 기사화 되어 있다.

44) 草野えり(2004), p.16

야마케이코는 리키시들도 중요시 하였는데 선하나 그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으면 다른 헤야(部屋)의 오야가타나 리키시들이 보러 와서는 어드바이스를 해 주어서 개인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⁴⁵⁾

서민들에게 특별한 여흥거리가 없었던 시대에 인기있는 리키시의 지방 출현은 서민 생활에 자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모 관전을 위해 도쿄까지 갈 수 없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볼거리였고, 화제거리이고 여흥거리가 되었다. 연일 많은 인원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기사들은 그러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국가체제에 의한 스모 소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경기에서 군중심리로 인해 행동이 과격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통제하는 권력(국가나 기관)은 어느 집단에서나 존재해 왔다.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치안유지라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하거나 허가를 한다해도 까다롭게 하기도 한다.

도쿄오스모협회(東京大角力協會 1889), 재단법인대일본스모협회(財団法人大日本相撲協會 1925)은 천황가와 군부, 정부 등 외부 권위에 편승하면서 조직의 통일을 꾀하고, 사업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군국주의화를 서두르는 국정아래에서 국력증진을 목적으로 스모를 적극 장려 지원해야 한다며 1906년 중의원에서 ‘국고보조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즉 스모계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안인데 국력증진에 빠질 수 없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기 위해 스모를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으나 귀족원에는 제출하지 않고⁴⁶⁾ 끝났지만 스모를 국가운영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강인한 군인은 강인한 체력에서 나온다는 입장에서 현역군인이 국민개병제에 즈음하여 건강한 신체와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서 스모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기고하고 있다.⁴⁷⁾ 좀 더 나아가 국민체조로서 강조하여 1936년 6월 3일부터 문부성의 훈령에 의해 스모가 소학교체조과교수요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30년대 후반에는 ‘국민정신작흥체육대회’가 전국적으로 행해질 때 스모도 한 종목으로 되어 있었다.⁴⁸⁾

도호 위의 지붕아래 사방을 둘러싼 막을 미즈히키막(水引幕)이라고 하는데 보라색 천으로

45) 納谷幸喜(2007), p.19

46) 風見明(2002), p.66

47) 『角力雜誌』9호, pp.6-7, 『角力雜誌』11호, pp.7-11

48) 『相撲』(1936) 4권1호, p.37

되어 있고, 경기로 인해 뜨겁게 달구어진 도효와 리키시들의 열기를 식혀준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막에 육군의 문장이 들어가자 즉각 해군측에서 반발하여 결국 해군측의 문장이 들어간 미즈히키 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모는 육해군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쇼와 천황은 육군기념일에 해행사(偕行社), 해군기념일에는 수교사(水交社)에 참석하여 매회 여흥으로 스모를 관전했다. 천황의 참석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⁴⁹⁾

당시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타바야마의 연승은 일반인들에게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때 군부는 30년대 후반 매년 조선과 만주에 주둔하는 황국군의 위문을 위한 준교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속에 1939년 스모협회 신임회장에 다케시타 이사무(竹下勇) 해군대장이 된다. 1933년 1월 사임한 오노 사사노부(尾野実伸) 육군대장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다시 군부의 인사가 맡았다.⁵⁰⁾

군부의 성원과 국가에 공헌한다는 입장에서 스모계에서는 1939년 공군에 격투기 ‘스모호’를 헌납한다. 후타다야마를 비롯한 리키시들과 관계자들이 하네다 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스모호의 정식 명칭은 ‘애국385스모호(愛國第三八五相撲号)’였다. 2년 전인 1937년부터 스모호 헌납을 위한 스모경기를 개최하여 마련한 것이었다.⁵¹⁾

또한 30년대 후반 스모계에 발군의 리키시 후타바야마의 등장은 침체기에 들어있던 스모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일본군의 진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69연승이라는 대기록은 ‘무적 후타바’ ‘무적 황군’을 중첩하여 국가공인 영웅으로 탄생시켰다.⁵²⁾ 전쟁준비와 군인정신을 강조하던 국가주의 분위기속에서 불패를 이어간 후타바야마는 정부에 의해 신국(神国)일본의 상징으로 선전되기도 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에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무예인 스모가 전간기에 근대적 스포츠로 바뀌는 과정을 ‘공간과 소비’라는 틀에서 알아 보았다. 여기서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을 비롯하여 법제나 규칙도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모를 소비하는 주체는

49) 金指基(2002), p.376

50) 『相撲』(1936), 4권8호, 日本相撲協會博物館運營委員(1975) 2卷, p.10

51) 荒井太郎(2008), p.42

52) 新田一郎(2010), p.297

관람자이며 시대적인 특성상 국가체제도 하나의 소비체로서 보았다.

스모계에서는 스모의 기원을 스이닌천황 재위기에 두고 있지만 현재의 일본스모의 원형이 되는 것은 에도시대 후기이다. 에도시대의 스모는 사사에 기진하는 간진스모에서 출발하여 흥행스모로 바뀌었다. 1833년부터 에코인에서 연 2회 경기가 정례화되었다. 이미 이 시대에 현재의 프로선수를 양성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 국체가 서구화일 때 잠시 스모부정론이 나오긴 하지만 후원자들과 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스모계에서도 근대화로 일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날씨 관계없고, 한번에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4층 콘크리트 건물이 1909년 6월 2일에 국기관으로 개관한다. 국기관 건립 목적에서 서구를 의식한 면도 없지 않지만 새 건물에서 스모계가 거듭나려는 일련의 규칙을 정하고 예능인 같은 이미지를 불식하여, 스모선수의 권위를 높이고, 행동이나 처신 등 사소한 부분까지 규제한다.

혼바쇼와 지방순회경기인 준교에서의 관객들은 단순하게 보여주는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오락과 여흥으로서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시기의 국가는 대중에게 인기있는 스모를 적절히 지원하고 통제하면서 전시 중 일선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사기진작 시키고, 일반대중에게는 전시의 불안한 기분을 스모경기로 집중하게 하는 선전도구로 이용했었다.

근대 공간과 소비에서 고찰한 스모는 전근대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근대 스포츠에 맞는 법과 규칙을 정립하려고 했다. 혼바쇼와 준교를 관전하는 관람자는 단순 관람형태가 아닌 개인의 여흥과 오락으로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대 공간의 창출에는 당시 천황제국가를 지향하는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통제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參考文獻】

- 『角力世界』(1915-1919) 角力世界社
 『角力雜誌』(1920-1923) 角道奨励会
 『国技』(1914-1919) 相撲通信社
 『相撲』(1936-1949) 日本大相撲協会.
 日本相撲協會博物館運営委員(1975)『近世日本相撲史』1卷-5卷, 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荒井太郎(2008)『歴史ポケットスポーツ新聞 相撲』大空出版
 アレン・グットマン 著 谷川稔 外 3 訳(1997)『スポーツと帝国』昭和堂
 アレン・グットマン 著, 清水哲男 訳(1981)『スポーツと現代アメリカ』TBSブリタニカ
 アンリルフェー 著, 斎藤日出治 訳(2000)『空間の生産』青木書店
 生沼芳弘(1994)『相撲社会の研究』不昧堂出版

風見明(2002)『相撲、国技となる』大修館
 金指基(2002)『相撲大事典 第三版』現代書館
 校主・訳者 小島憲之(1994)『日本書紀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2, 小学館
 酒井忠正(1964)『日本相撲史』日本相撲協会
 玉木正之(2011)『大相撲八百長批判を啜う』飛鳥新社
 高埜利彦(1989)『近世日本の国家権力と宗教』東京大学出版会
 新田一郎(2010)『相撲の歴史』講談社
 根間弘海(2010)『大相撲行司の伝統と変化』専修大学出版局
 根間弘海(2011)『大相撲行司の世界』吉川弘文館
 根間弘海(2013)『大相撲の歴史に見る秘話とその検証』専修大学出版局
 林利彦(2008)『経済学入門』放送大学教育振興会
 松木信也(2013)『富岡八番宮と江戸勸進相撲』富岡八番宮権禰宜
 武藤泰明(2012)『大相撲のマネジメント』東洋経済新報社
 草野えり(2003)「番附作成に関わる諸要素の現状及び歴史的考察」『相撲紀要』2巻, 相撲博物館
 草野えり(2004)「相撲の巡業」『相撲紀要』3巻, 相撲博物館
 草野えり(2006)「国技館」『相撲紀要』5巻, 相撲博物館
 高津勝(2010)「民衆史としての大相撲」『現代思想』青土社
 デーモン閣下(2010)「国技と称され続けるために」『現代思想』青土社
 納谷幸喜(2007)「昭和30年代の地方場所について」『相撲紀要』6巻, 相撲博物館
 松原隆一郎(2010)「興行としての大相撲」『現代思想』青土社
 吉田満梨(2011)「大相撲の観戦行動に影響する要因についての実証研究」『立命館経営学』立命館大学経営学会
 리어 톰프슨(1990)「스포츠近代化論から見た相撲」『スポーツの社会学』世界思想社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스모의 근대 공간형성과 근대 스포츠로서의 소비

일본 스모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 시대마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모가 1910-1930년대에 근대스포츠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공간과 소비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함축된 확대된 것이며 소비 주체는 관람자와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국가체제이다.

현대 스모의 원형이 되는 것은 에도 후기 에코인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졌던 스모경기이다. 스모의 고실(故實), 경기방식, 도호 등과 지방 순회경기인 준교가 이때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스모 경기를 운영하고 리키시들을 관리하는 단체인 스모카이소도 만들어졌다. 근세의 스모는 그것이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긴 해도 지배층의 통제를 받으면서 스모카이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당시의 리키시들은 예능적인 면도 있었다.

문화개방과 함께 시작된 근대화에 스모계 또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물리적인 공간은 임시가건물에서 콘크리트 건물의 상설관으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상설관에 걸맞는 규칙을 제정하고, 스모계의 간부들과 리키시들에게도 예능인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진검승부를 지향하는 선수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요구했다.

혼바쇼와 준교를 관전하는 관람객들은 경기운영과 리키시들에게 팬으로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었고, 준교는 관객들에게 인기 리키시들의 경기를 보면서 일상이 아닌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당시 천황제국가, 군국주의로 향하는 국정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여흥이자 오락을 정치의 도구로서 소비하기도 했다. 전시체제의 강건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국민체조로서 이용하는가 하면 후타바야마 같은 리키시의 연승을 일본군대의 연승으로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스모의 근대화에는 우선 상설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있었고, 소비의 주체인 관람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여흥으로 인식하였다. 군국주의 상황에서 국가체제도 스모를 이용함으로써 스포츠에 국가권력이 개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odern Space Formation and Consumption as Modern Sport in Sumo

Japanese Sumo has long history. Its character is varied every period as much as having long history.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that Sumo emerged as modern sport in the 1910s-1930s with a concept called space and consumption. The space in this study is not what designates physical space, but is what was expanded with being implied a social and cultural meaning. The main agent in consumption includes the spectator and the national system of pointing to militarism. What becomes the prototype in modern Sumo is Sumo game, which had been periodically performed in Ekoin in the late Edo period. The operating system of game rule in Honbasyo and Jungyo, which is provincial tour game, come to have system at this time. Also, it was made even Sumokaiso, which is organization of operating Sumo game and managing Rikishi(s). Sumo in modern times was operated focusing on Sumokaiso with being controlled by the ruling class even if being a group of aiming at its performance. The Rikishi(s) in those days had artistic aspect, too.

In the modernization that was begun along with opening door, even the Sumo circles were demanded a change. The physical space was changed from temporary structure to permanent hall in concrete building. At the same time, it enacted rules in line with permanent hall and requested even the executives in the Sumo circles and the Rikishi(s) to have qualification as a player of pointing to victory by sword with removing personality in entertainer.

Spectators, who watch Honbasyo and Jungyo, became the main agent of consumption while making positive demand as fan to the game operation and Rikishi(s). Jungyo allowed spectators to feel special pleasure, not daily life, while watching a game of popular Rikishi(s). The state under the Emperor System, namely, the government of pointing to militarism, had ever consumed these popular entertainment and amusement as political tool. It used it as national physical exercise for making strong soldier in a war footing, and also applied positively so that successive victories of Rikishi like Hutabayama can be recognized as the winning streak of the Japanese army.

In modernization of Sumo, there was a change in physical space called permanent hall, above all. Even in the position of audience, which is the main agent of consumption, it was recognized as positive, individual, and direct fun. It could be known that the government power can be intervened in sports by which even national system uses Sumo in the situation of militarism.